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12.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9  |
| IV. 국제신인도    | 13 |
| V. 종합의견      | 15 |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1,221천 km <sup>2</sup> | G D P   | 3,504억 달러 (2013년) |
| 인구   | 52.78백만 명 (2013년)      | 1인당 GDP | 6,640달러 (2013년)   |
|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                | 통화단위    | Rand (R)          |
| 대외정책 | 친서방 중립                 | 환율(달러당) | 9.64 (2013년 평균)   |

- 남아공은 5,278만 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보유한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Pretoria), 경제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관광 중심지이자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Capetown), 물류 항만 중심지인 더반(Durban) 등이 주요 도시임.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994년 흑인정권 출범 이전까지 오랜 기간 소수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유지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인종간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격차가 발생함.
- 풍부한 광물자원,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비교적 발달한 사회기반 시설과 금융산업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치안 불안, 높은 AIDS 발병률, 강력한 노동조합 등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상존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2014년 경제성장률은 1.6%로 약간 하락 추정

- 2012년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가격하락과 광산 분야의 파업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3년에도 전년대비 0.6% 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함.
- 2014년에는 백금광산과 건설노동자 조합의 파업 종결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전력난, 랜드화 약세, 높은 실업률,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기조 지속

- 인프라 확충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한편, 주요 산업인 광업 부문이 파업의 여파와 세계경기 침체로 위축되어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3~4%대의 재정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2014년에도 역시 GDP 대비 4.3%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2014년 초에 발표한 예산 관련 성명서에서 행정 서비스 부족과 소외계층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의료, 교육, 지역 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재정적자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 랜드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세 지속 예상

- 미 달러에 대한 랜드화 환율(연평균 기준)은 2012년 8.2랜드에서 2014년 10.8랜드로 크게 상승함. 이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2014년에는 4.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임금 인상, 전기료 인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sup>o</sup> | 2014 <sup>t</sup> |
|------------|------|------|------|-------------------|-------------------|
| 경제성장률      | 3.1  | 3.6  | 2.5  | 1.9               | 1.6               |
| 재정수지 / GDP | -4.3 | -3.7 | -4.6 | -4.1              | -4.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3  | 3.7  | 4.6  | 4.1               | 4.3               |

자료: IMF,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

- 과거 남아공은 국내 수요에 비해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잔여 전력을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등 인근 국가들로 수출하였음.
- 그러나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력시설 확충을 간과하여, 현재는 전력난이 경제성장 저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남아공은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인프라 분야는 144개국 중 59를 기록하였으나, 전력공급 부문에서 99위를 기록함.

##### □ 노동시장의 경직성, 숙련 인력의 부족

- 남아공 정부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남아공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된 편임. 고용안정을 위해 해고절차도 까다롭게 설정된 관계로 직원의 해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흑인정권 출범 이후 숙련된 백인 인력의 해외이주로 남아공은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유출인력의 복귀,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성장 잠재력**

**□ 망간, 형석 매장량 세계 1위, 크롬, 금 세계 2위의 광물자원 부국**

○ 남아공은 원유, 보크사이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크롬은 전 세계 매장량의 41.7%, 망간은 26.3%, 형석은 17.1%, 금은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보유국임.

- 이외에도 크롬철, 규산, 알루미늄, 질석,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몬 등 55종 이상의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양호한 인프라 및 제도로 오랜 기간 선진국의 주요 투자 대상**

○ 남아공은 해상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아프리카 전체 철도의 80%를 차지하는 잘 발달된 인프라,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경제적, 기술적으로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라는 점 등의 비교적 유리한 투자여건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 되어왔음.

- 1994년 흑인정부 출범 이래 적극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중심의 투자와 더불어 외자유치, 신규고용 창출 등을 위해 민간 주도의 공산품 수출을 늘리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제조업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음.

**□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금융 허브 역할**

○ 남아공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남아공의 금융산업은 남아공 GDP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해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화거래 또한 상당 부분 자유화하였음.

○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남아공 금융시장에서 해외 메이저 금융기관들은 남아공 금융회사의 지분취득을 통해 남아공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에너지, 수도, 통신,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흡**

○ 2012년 8월부터 추진 중인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에너지, 수도, 통신, 교통 분야 등의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과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나 파업 여파로 투자유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3월부터 제2차 인프라 건설계획을 통해 2014년까지 총 1,114억 달러 규모의 43개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부정부패와 비효율적 업무처리 등으로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함.

**3. 대외거래**

**□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비중 개선 전망**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012년 이후 상품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광산 개발, 인프라 건설 등으로 서비스수지도 적자가 지속되어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임.

○ 다만, 2014년에는 파업 종결로 백금, 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수지 개선과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5.2%로 (전년 5.8%)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FDI 유입 불구, 기존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 남아공의 주요 투자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EU 국가로, 유럽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 2013년 FDI 유입은 전년대비 79.6% 증가한 82억 달러를 기록함.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외환보유액 변동은 크지 않음.

○ 2014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및 랜드화에 대한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일부 유동성 관련 지표 악화

- 2014년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69.3%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3년 총외채잔액은 전년대비 52억 달러 감소하였으나, 랜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명목GDP(달러기준)의 감소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3년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한 39.1%를 기록하였고 2014년 역시 전년대비 2% 포인트 이상 상승한 41.5%를 기록할 전망이다.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sup>a</sup> | 2014 <sup>f</sup> |
|-------------------|---------|----------|----------|-------------------|-------------------|
| 경 상 수 지           | -7,192  | -9,379   | -20,059  | -20,445           | -17,045           |
| 경 상 수 지 / G D P   | -2.0    | -2.3     | -5.2     | -5.8              | -5.2              |
| 상 품 수 지           | 6,774   | 6,486    | -4,825   | -7,630            | -6,020            |
| 수 출               | 89,757  | 108,788  | 99,335   | 95,146            | 97,178            |
| 수 입               | 82,982  | -102,302 | -104,160 | -102,776          | -103,198          |
| 외 환 보 유 액         | 38,175  | 42,595   | 43,995   | 44,864            | 44,418            |
| 총 외 채 잔 액         | 111,256 | 118,180  | 142,345  | 137,095           | 139,159           |
| 총 외 채 잔 액 / G D P | 30.6    | 28.9     | 37.0     | 39.1              | 41.5              |
| D S R             | 4.1     | 3.8      | 3.9      | 3.9               | 3.7               |

자료: IMF, EIU.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주마 대통령의 연임 성공

- 2014년 5월 총선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ANC)가 62.2%의 득표율로 여당자리를 유지함에 따라, 제이콥 주마(Jacob Zuma)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됨.
- ANC 내 진보성향의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와 남아공 공산당(SACP)과의 연맹은 계속 유지되어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안정적인 집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적 갈등 불구,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

- 1994년 흑인정권 출범과 흑인경제육성법에도 불구하고 흑인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흑인계층의 높은 실업률과 소득불균형이 이어져 인종간 갈등 원인 및 높은 범죄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높은 실업률, 소득격차, 행정 서비스 부족이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위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강력한 공권력과 높은 민주주의 의식으로 전국적인 소요사태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국제관계

□ 대외협력 관계 중대 노력 및 역내 위상 유지

-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와 교류를 증가시키는 한편, 미국, EU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중요시 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으로서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등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현재도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활동을 지속하는 등 역내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유지

- 과거 채무재조정 경험은 없음. 2014년 3월말 현재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110억 달러로, 중장기 외채의 연체비율은 전년 동기 2.2%에서 0.2%로 하락하여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사의 등급 및 전망 하향 조정, OECD는 3등급 유지

- 2012년에 시작된 광산 부문의 대대적 파업이 남아공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S&P, Moody's, Fitch는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였음.
- 2014년에도 S&P, Moody's는 부정적인 경제성장률 전망과 쌍둥이 적자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였으며, Fitch 역시 동일한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조정함.
- 한편, OECD는 현재까지 3등급을 유지 중임.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등급         | 종전 평가등급        |
|---------|-----------------|----------------|
| OECD    | 3등급 (2014. 6.)  | 3등급 (2013. 6.) |
| S&P     | BBB- (2014. 6.) | BBB (2012.12.) |
| Fitch   | BBB (2014. 6.)  | BBB (2013. 1.) |
| Moody's | Baa2 (2014.11.) | Baa1 (2013. 7) |

###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92. 12. 1. (북한과는 1998. 8. 10. 수교)

□ 주요 협정 : 항공협정('95), 이중과세방지협정('96), 투자보장협정('97), 과학 및 기술분야 협력협정('04),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협정('11)

## □ 교역규모

- 2013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44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27억 달러, 수입은 철광, 합금선철 및 고철, 금, 백금을 중심으로 17억 달러를 기록함.

< 표 4 > 한·남아공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 2012  | 2013  | 2014.1~11 | 주요 품목               |
|----|-------|-------|-----------|---------------------|
| 수출 | 2,188 | 2,698 | 1,341     |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 수입 | 2,129 | 1,729 | 1,486     | 철광, 합금선철 및 고철, 금·백금 |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양국간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주요 투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실적은 2014년 9월말(누계기준) 신규 법인수 총 67건, 투자금액 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남아공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내역은 총 23건, 94백만 달러임.

## V. 종합의견

-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가격하락과 노동자들의 파업, 랜드화 약세 등 복합적 요인으로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산업의 약세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역시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광산 개발 및 인프라 건설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이나, 2014년 파업 종결로 주요 광물의 수출이 활성화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는 2014년 5월 총선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여당자리를 유지함에 따라 주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되어, 안정적인 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D.S.R은 3.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외환보유액도 큰 변동은 없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의 67.5%에 그치고 GDP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조사역 임민교 (☎02-3779-5720)  
E-mail: ymg@koreaexim.go.kr